

호남대 '전공 나눔 현장학습'...지역사회 상생 실천

2009년 '건강한 MT 문화 조성' 시작
올해도 36개 학과생 참여 봉사활동
배선 교체·배식·뷰티 케어 등 다양

호남대 학생들이 전공 나눔 봉사 통해 지역 사회와 상생을 실천하고 있다.

23일 호남대학교에 따르면 건강한 대학 MT 문화 조성과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해 꾸준히 추진해 온 '전공 나눔 현장학습'(Field Trip·FT)이 올해도 36개 학과별로 시작했다.

호남대 FT는 2009년부터 '전공 체험+지역봉사형 건강 MT'로 진행됐으며, 2017년부터는 현장학습 활동을 더해 신개념 교육프로그램으로 거듭났다.

올해 FT 활동은 전기공학과와 패션디자인학과, 식품영양학과 등 10개 학과가 지난 16일 첫

스타트를 끊었으며, 이달 말까지 1박2일간의 학과별 전공 특성을 살린 다양한 봉사활동이 전개된다.

기계자동차학과는 광주 영신원에서 한국전기안전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 ㈜에스더블유이엔지와 협업을 통해 노후화된 콘센트와 배선 교체를 해주는 등 안전한 전기 사용을 도왔다.

패션디자인학과도 광산구 운남동 더불어락 노인복지관에서 어르신들을 위해 점심 식사 준비와 배식, 음식물·테이블 정리 등의 봉사활동을 펼쳤다.

앞서 호남대는 36개 참여 학과의 FT 기획안을 심사해 경영서비스계열 외식조리베이커리학과에 최고점을 부여, 우수상과 함께 지원금 50만원의 혜택을 제공한다.

외식조리베이커리학과는 '아들, 딸들이

해주는 우리동네 식구들의 맛있는 한 끼' 프로그램으로 어룡동주민센터와 협력해 어르신들의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메뉴 200인분을 만들어 소외계층 주민들에게 전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건계열에서는 간호학과와 'Health Together, Care & Joy' 프로그램이 선정됐으며, 사회과 학교교육계열에서는 사회복지과의 '지역사회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한 전공 연계 현장체험 및 재능 나눔'이, 공학계열에서는 컴퓨터공학과와 '지역아동센터 재능 나눔'이 각각 우수상에 이름을 올렸다.

문화예술디자인계열에서는 뷰티미용학과와 '힐링 뷰티 케어', 스포츠산업계열에서는 축구학과와 '지역 유소년 대상 축구 재능 나눔'이 선정돼 각각 50만원의 특별지원금을 받게 됐다.

호남대학교 관계자는 "학생 개개인의 재능을



호남대 전기공학과 학생들이 최근 광주 동구 영신원에서 한국전기안전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 ㈜에스더블유이엔지 관계자들과 함께 봉사활동을 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호남대학교 제공>

살려서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FT'는 우리 호남 % 살려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지역 대학의 이미
대학교만의 특화된 브랜드인 만큼 그 취지를 100 지를 다져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선욱 기자



전남도교육청학생교육원이 운영 중인 '찾아가는 평화 감수성 키움교실'이 학교 현장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사진은 '회복적 서클' 활동 모습. <전남도교육청 제공>

전남학생교육원 '평화 감수성 키움교실' 호응

도내 중학생 새학기 관계 형성 지원
회복적 서클·갈등 조정 역량 강화 등

전남도교육청학생교육원이 중학생들의 건강한 소통과 평화로운 학급 공동체 형성을 위해 운영 중인 '찾아가는 평화 감수성 키움교실'이 학교 현장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23일 전남학생교육원에 따르면 새 학기 관계 형성이 중요한 3월, 도내 중학교 101학급을 대상으로 집중 교육을 실시했다.

특히 신설 학교인 무안 희망중학교에서는 학생들이 등교를 두려워하 평화 규칙을 세우고 서

로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회복적 서클'(Restorative Circles) 활동이 학생과 교사들의 만족감을 높였다.

참여 학생은 "평소 서먹했던 친구와 눈을 맞추고 대화하며 서로의 진심을 알게 된 소중한 시간이었다"며 "갈등이 생겨도 비난하기보다 먼저 대화로 풀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이 생겼다"고 소감을 전했다.

전남학생교육원은 오는 4·7월 총 150학급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며, 사춘기 청소년의 정서적 특성을 반영해 관계 회복과 공감 기반의 소통 역량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주요 프로그램은 ▲회복적 서클 ▲신뢰 서클

및 체크인 활동 ▲갈등 조정 역량 강화 교육 등 으로 구성된다.

회복적 서클은 경청과 공감을 바탕으로 공동체 유대감을 회복하고 학급 규칙을 함께 만들어 가는 활동이다. 신뢰 서클 및 체크인 활동은 학생들의 정서적 안전망을 형성하고 교실 내 긴장 완화를 돕는다. 갈등 조정 역량 강화 교육은 대화를 통해 갈등을 해결하는 힘을 기르는 데 초점을 둔다.

김창근 원장은 "중학생 시기의 관계 특성을 고려해 갈등을 대화로 풀고, 관계를 회복하는 경험이 학교 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선욱 기자

동신대, 탄소중립 시민활동가 양성

선착순 40명...내달부터 8주 과정

동신대가 위탁 운영 중인 나주시 탄소중립지원센터가 기후위기 대응과 지역사회 중심의 탄소중립 실천을 확산하기 위해 '탄소중립 시민활동가 양성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23일 동신대학교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정부 중심 정책 추진의 한계를 보완하고 지역민이 직접 참여하고 실천하는 탄소중립 활동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된 시민 참여형 교육 프로그램이다.

기후변화와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이해를 갖춘 시민 활동가를 양성해 지역탄소중립 실천을 이끌어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교육은 오는 4월2일부터 5월21일까지 매주 목

요일 2·3시간씩 동신대 산학협력관 5층 세미나실에서 8주 과정으로 진행된다.

교육 내용은 ▲탄소중립 정책 동향 ▲기후변화 과학 ▲나주시 온실가스 배출 구조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 ▲농업·축산 분야 온실가스 감축 기술 등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교육 과정에서 출석률 80% 이상을 충족하고 팀별 활동 과제 수행 및 발표에 참여한 수강생에게는 수료증이 수여되며, 우수 수료자는 나주시 탄소중립 전문 활동가로 위촉돼 향후 탄소중립 교육·캠페인·홍보 활동에 참여할 기회가 제공된다. 교육은 선착순 40명 내의 시민을 대상으로 하며, 신청은 나주시 탄소중립지원센터(061-330-2900-1)로 문의하면 된다. /박선욱 기자

광주 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

내일부터 '문화가 있는 날' 운영

광주시교육청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은 23일 "오는 25일부터 매주 수요일 오감 체험형 문화행사 '문화가 있는 날'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시민과 어린이들이 다채로운 독서문화 활동을 체험하며 일상 속에서 문화적 소양을 넓힐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프로그램은 '수요 낭독서재'와 '수요 사부작 DAY' 등 2개로 나눠 운영된다.

'수요 낭독서재'는 시민을 대상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도서관 종합자료실 음악감

상실에서 '나를 돌아보는 사계'를 주제로 진행 된다.

'수요 사부작 DAY'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어린이책 재운터에서 주제 도서와 연계한 창의, 색종이, 색연필 등이 담긴 '사부작 박스'를 활용해 책 속 이야기를 그림이나 입체 창작물로 제작하며 독서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

참가비는 전액 무료이며, 별도의 신청 없이 현장에서 참여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 누리집 (<https://lib.gen.go.kr/student/>) 또는 종합자료실(062-221-5581), 어린이실(062-221-5576)에서 확인하면 된다. /박선욱 기자

친환경 수목장

☑ 아름다운 자연

☑ 365일 관리

☑ 가족구성 가능

☑ 사용기한 없음

☑ 전문 이장

☑ 광주시청 20분

수목장 · 묘지 이장 · 장례

상담: 062-449-4446